

대한 양계협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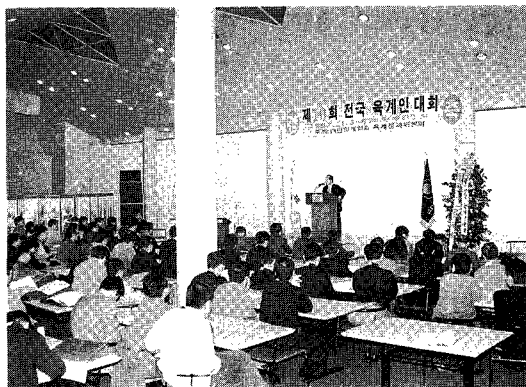
FAX문서 발신자 조사확인 요청 난가현실화 저해내용 배포에 따른 조치

본회는 최근 상인측에서 불법내용으로 FAX를 조작하여 난가유통을 흐리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익명의 팩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지난 13일 한국통신에 익명의 FAX문서 발신자 조사확인을 요청하였다.

협회는 일부 악덕상인으로 예측되는 자가 양계농가를 속여 폭리를 취하고자 배포한 FAX문서로 인해 계란유통에 커다란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익명의 FAX 발신자를 찾아 엄중조치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문서를 FAX로 송부한 발신자를 찾는데 협조해 줄 것을 한국통신에 의뢰하여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의 결의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추적해나갈 방침을 세웠으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도 앞으로의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97전국육계인 대회 개최 회장배쟁탈 족구대회 경북지부 우승



제10회 '97전국육계인 대회가 지난 5~6일 양일간에 걸쳐 전북 무주에 위치한 무주리조트에서 육계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날 개최된 세미나에서 축산기술연구소 김상호 과장은 '육계사료의 영양과 품질관리'에 대해, 축산기술연구소 서옥석 연구관은 '육계사의 환경관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벌어진 종합토론은 '육계사육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축산기술연구소 이상진박사로부터 자체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후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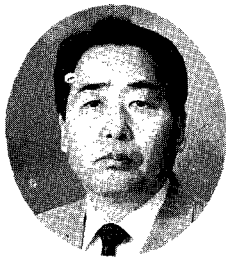
또한 축산신문사 윤봉중 사장이 '닭고기 수입 개방화 시대에 육계인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식식후에는 대회장에서 국내 육계산업의 당면현안 및 육계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날 각 지부·분회별로 실시한 회장배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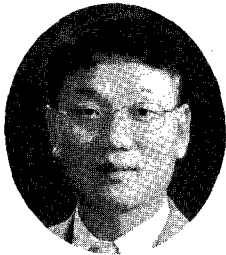
탈 족구대회는 육계인들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자리에서 경북지부팀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이천분회, 장려상은 가평분회가 각각 차지하였다.



본회 최준구 회장, 김용화 부장 한국가금학회 학회상 수상



◁ 최준구 회장



◁ 김용화 부장

한국가금학회(회장 정선부)가 지난 28일 추계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회원 및 관계자들에게 수여한 학회상 시상식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에게 공적상(봉사분야)을, 본회 김용화 홍보부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하였다.

한국축산박람회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협의회 개최

한국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국)

가 지난 3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를 비롯한 4개단체(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의 전무(국장, 부장급)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봉국 위원장에 의해 지난 10월 10일 축산단체장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양계박람회를 축산박람회로 확대)을 중심으로 배경설명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4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국양계박람회의 전통성을 계승, 양계박람회를 축산박람회로 발전, 확대하여 개최한다는 기본취지에 동의하였다. 이날 협의된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박람회 명칭 : '99한국축산박람회
2. 박람회 추진을 위한 위원회 명칭: 한국축산박람회 추진 위원회
3. 대회장 : 4개단체장이 공동
4. 위원장 : 오봉국 박사(본회 고문)
5. 위원위촉시기 : '97년도내 추진위원을 위촉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기관, 단체장 및 업계 대표 등 저명인사로 함.
6. 위원회 가동 : '98년 3월 15일부터 개시
7. 박람회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명칭 : 한국축산박람회 운영위원회
8. 운영위원회 운영
-공동주최 4개 단체의 전무(국장, 부장 포함)를 중

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함.

—운영위원회 소속기구로 공동주최 4개 단체의 박람회담당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로 구성, 운영키로 함.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오봉국 박사)이 겸임키로 함.

9. 박람회 추진 총괄단체는 대한양계협회로 하고 간사는 동협회 전무로 함.

10. 기타 별도로 발기인대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축산 3개단체장 오찬간담회를 대체키로 함.



제4차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제4차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사업 추진협의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4년부터 실시되어온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연구사업에 대한 산업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연구실적에 대한 종합분석이 있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일에는 재래닭의 계통육성 및 일반능력검정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와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요령이 협의되었으며 11일에는 재래닭 생산물의 소비행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중간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허위조작된 가격(FAX)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1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추석 전후 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유통에 혼란을 가져온 FAX에 이어 4일 아침에 익명으로 가격이 조작된 FAX가 전국으로 나돌면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자행될 경우 계란유통은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하였다. 협의내용을 보면 추석전후 전송된 FAX에 대해서는 이를 발송한 상인측을 대상으로 각 분회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이 모아지는대로 이들을 국세청에 고발조치키로 하였으며 익명의 FAX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자가 밝혀지면 같은 건으로 고발조치키로 결정하였다.

차후 전망에 대해서는 올 3/4분기에 입식된 산란종계가 23만수가 입추되어 이 계군들이 계란생산에 가담하는 내년 전반기에 산란실용계가 증가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경기침체에 따른 지구책 모색

11월 중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원종계 수입량과 특정 품종 국내대리점의 변동사항으로 종계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여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나 아직까지 금후 종계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금년 이후 내년 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조심스런 전망을 하였다.

또한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생산량을 큰폭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한편으로는 달러화의 강세로 국제 무역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농장에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총 5만수대의 병아리가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소비위축, 생산자들 의욕상실

1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육계가격이 생산비선 이하(실거래 700원)를 밀돌면서 생산자는 물론 상인들까지 의욕을 잃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생산자들은 앞으로 병아리 생산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격이 높을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사료, 병아리, 기름가격 등 원자재비가 오를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입추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연말연시를 겨냥해 이미 상당수의 병아리가 입추되었고 12월 초가

지 입추계획을 갖고 있는 농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불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올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2중시세가 실거래가격에서 200원까지 나타나 실거래가격을 공표하지는 의견도 나왔으며 시세를 결정하는 유통협의회측에 2중시세를 없애는 방법을 고려하여 시세를 고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한편 수입개방 이후 10월까지 8,000톤이 넘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수록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닭고기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회 직원 단합대회 개최



본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에 걸쳐 전북 부안군 소재 변산반도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그간 양계박람회 추진과 장기불황의 타개책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비상업무체제를 유지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야유회 겸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